

1. 참가 활동 내용(사진 포함 가능)

“다름을 경험하다”

1일차: 공항 --> 하노이대학교 --> 저녁식사 및 시내투어 --> 숙소

베트남의 첫인상은 익숙함과 생소한 풍경이 조화를 이뤘다. 공항을 나가자마자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 광고로 도배된 전광판을 볼 수 있었고, 습한 날씨와 야자수들은 사뭇 낯설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창밖의 풍경을 관찰했다.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빨래가 널려있는 모습, 구식 오토바이의 모습과 백화점 및 고층 빌딩의 풍경이 제법 어울렸다.

숙소에 짐을 풀고 우리는 하노이대학교로 이동하였다.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는 하노이대학교의 외관과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다. OT를 마친 후 내려와 바라본 석양의 모습은 황홀했다. 연한 바이올렛 색이 그라데이션을 이루며 하늘을 수놓았고, 일제히 사진 촬영을 하였다. 우리를 바라보는 가이드님의 미소로 추측건대, 베트남에서 이러한 풍경은 일상인 것 같다. 이후 캠퍼스 투어를 하며 도서관을 방문했는데, 우리의 그것과 별다른 바 없었다.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베트남의 교육열과 학구열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야외에서는 남녀노소 야외활동을 즐기고 있었다. 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과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한국인들의 저녁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워라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다.

시내를 돌아다니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의 시선일 뿐, 그들의 삶에는 오토바이가 필수적인 존재였다. 그랩 등 오토바이를 이용해 관광하는 유럽인을 종종 보았고, 오히려 승용차보다 더 보편화된 이동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유가 궁금해 베트남 선생님께 질문하니, 베트남에서는 내수용 자동차 생산이 보편적이지 않고 수입차에는 높은 관세를 매긴다고 답하셨다.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겨났는데 이 점은 이후에 설명할 것이다. 허기진 배를 이끌고 음식점에 들어갔고, 한국의 분짜와는 다른 본연의 맛을 경험할 수 있었다. 고수를 많이 먹어 고생하기는 했지만, 첫 분짜의 경험은 좋았고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인심 좋은 주인아주머니 덕에 기분까지 좋아진 것은 덤이다.

숙소가 노후화되어 살짝 실망했지만, 불평할 시간도 없이 베트남의 밤하늘이 무척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내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내일은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탐방 첫날의 피로와 설렘이 기분 좋게 어울려진 하루였다.



하노이 대학교 전경



하노이 대학교 도서관



하노이 시가지

2일차: 하노이대학교 --> 문묘 --> 민속박물관 --> 저녁식사 및 맥주거리

이튿날에는 하노이대학교에서 문화교류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의 언어·역사·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식견을 조금이나마 넓힐 기회였다. 무엇보다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 어제 수많은 오토바이를 보고 내가 품은 의문을, 다른 학우가 교수님께 물어보았다. '베트남은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대기오염 등)를 겪고 있지 않나요?' 매우 적절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베트남이 추구하는 한국식 경제개발모델의 맹점도 바로 환경문제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면서 도외시한 환경문제가, 부메랑이 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미세먼지·수질오염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대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을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늦지 않았다. 한국의 기술력과 선례가 베트남이 현명하게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한화그룹이 메콩강에서 수상쓰레기 청소를 지원하는 보트를 기증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이야말로 '한국-베트남 양국이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는 길은 아닐까?'생각했다.

문묘에서는 수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었다. 준수한 정비 상태와 의외로 큰 규모에 놀랐다. 무엇보다 약 1000년 전 베트남 최초의 대학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또한 거북 머리를 한 비석에 관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 흥미로웠다. 사실 베트남은 굉장히 이질적인 국가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같은 유교문화권으로써 많은 부분이 닮았다는 사실을, 문묘 탐방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화재를 소중히 관리하고 다루는 베트남인들의 모습에 경외감이 생겼다. 송례문 화재와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과거의 것을 조금 더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민속박물관에서는 베트남 소수민족의 삶을 마주하였다. 베트남을 단일민족국가로 착각했던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며 생소한 모습을 한 그들이었지만, 삶의 지혜만큼은 국적과 민족을 막론하고 똑같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와 다른 가옥 형태 및 도구를 보며 친근함이 들었던 이유일지도 모른다. '다음 방문에는 이전에 소수민족의 삶을 공부하고 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후 롯데백화점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도 '다름'을 보았다. 전날 돌아다닌 시장의 모습과 백화점은 천지 차이였다. 실제로 백화점은 주로 베트남의 중산층들만 이용하는 곳이며, 가격대도 꽤 있었다. 오히려 이곳의 풍경은 한국과 흡사했다. 명품 가방을 쇼핑하는 모습,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외식하는 가족의 모습 등을 보며 베트남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처음으로 그랩을 이용하였다. 굉장히 만족했다. 카카오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7인승 대규모 승합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초과공급 덕분에 짧은 거리도 승차거부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분명 우리와 다른 모습이었다. '분보남보'라는 음식점에서 과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이 청구되어 살짝 놀랐다. 또한, 물을 잘 안 주는 베트남 식당의 문화도 알게 되었다. 맥주 거리로 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베트남의 밤 문화를 대략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이 저렴한 물가라는 사실을 확실히 느낀 순간이기도 하였다. 맥주와 안주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었다.



문묘 입구



베트남 민속박물관



맥주거리

3일차: 기업방문 --> 베트남 역사박물관 --> 성요셉 성당 --> 육교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을 방문하였다. 담당자님께서 환경보호를 위해 해당기업이 노력하는 점을 말씀해주셨고, 이는 내가 어제 생각했던 부분이라 듣던 중 반가웠다. 이러한 기업의 윤리의식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했다. 설명 이후, 담당자님을 따라 생산현장을 둘러보았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같은 한국의 대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위해 베트남을 신(新)시장으로 개척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중견·중소규모의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리바이스·유니클로 등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청바지 데님을 제공하는 기업이 한국기업이라는 사실 또한 감동적이었다. 무엇보다 섬유산업은 노동집약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TCE 공장 내의 첨단 기술을 보며 '시대가 변화하고 있구나' 생각하였다. 노동 인프라이가 좋고 성장 가능성이 큰 베트남 시장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였다.

베트남의 역사박물관은 특이했다. 전근대와 근대 박물관으로 나뉘어 있었고, 비교적 한산했다. 하지만 베트남어 이외의 언어로 설명이 되어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평소 베트남 역사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다소 아쉬웠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여, 내가 사전 조사를 하고 왔더라면 전시를 보는데 큰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다음부터는 여행하기 전 적어도 방문 국가의 역사만큼은 숙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나마 현대사 박물관에서는 배경지식이 있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와 비슷한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내용으로 다뤘, 몰입도 되었다. 이후 우리 조(6조)는 성 요셉 성당으로 향했다. 그랩을 이용하는 대신, 걸기로 했다. 차로 이동하며 눈에 미처 담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풍경은 이색적이었다.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오토바이에 4명씩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름을 '틀림'으로 착각한 나의 오판이었다. '한날 빛이 어찌 어둠의 깊이를 이해하라'라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처럼, 베트남에 온 지 사흘째 된 내가 그들의 사회상을 온전히 이해할 리 만무하였다. 오히려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표정에서 나는 행복을 읽을 수 있었다. 즉, 우리와는 다르게 그들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는 말처럼, 그들의 삶의 방식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동시에 편견을 깨고 나니, 베트남을 더욱 즐길 수 있었다.

우리는 성 요셉 성당에서 사진을 찍고 약 2시간의 자유시간을 가졌다. 혼자 스타벅스에 가서 휴식을 취하던 중,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사람들이 다 먹은 음료잔을 치우지 않는 것이었다. 한국이었다면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겠지만 이곳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해봤다. 나 또한 천성이 착해서 알아서 치우기보다는, 안치우면 욕을 먹으니까 그랬었다. 한국에서 이러한 문화가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치우는 문화가 선진화된 것이라면 베트남 또한 언젠가 한국처럼 변할 것으로 믿는다. 혹은 선진화 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화일 뿐이라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숙소 복귀 전, 마트에 들러 맥주를 사 오던 중 육교를 지났다. 그런데 많은 베트남 학생·젊은이들이 육교 위에서 삼삼오오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한국 학생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꿈에 대한 고뇌와 실패로 인한 좌절은, 국적을 막론하고 모든 청년이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담배꽂초를 보고 확신했다. 치열한 젊은 날의 초상이 투영된 심볼 중 하나가 담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담배는 인위적이다. 건강이라는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행위에 일조하기 때문이다. 담배는 해롭다. 흡연자 개인의 건강악화뿐 아니라, 간접흡연 꽂초 투기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해악성을 알면서도 담배를 끊기란 쉽지 않다. 누구나 하나씩은 내면에 품고 있는 불안함이라는 'Smoking Dream' 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목직한 담배 연기에 걱정과 근심을 날려 보내는 친구들, 학우들의 모습은 시험 기간에 한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재지팩트의 'Smoking Dreams'라는 노래를 들었고, 가사가 더욱 와 닿는 밤이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해, 내꿈에 관해 왜 난 이럴까? 물음표로 수놓인 밤하늘 나를 내려다 보는 star 괜히 오늘따라 더 높아 보이기만 하네. 내가 다 큰줄 알고 내 귓등에 쌓아 놓은 듣기 싫은 잔소리 내 존심과 싸워 결과는 뻔해. 아마도 저번에 어머니가했던 걱정들이 틀리게 없나보네. 화살인 시간을 피하기가 어려워 흘렸던건 피 아닐까? 따가운 시선과 많이 찢어진 내의지에 이제와서 난 뼈약이다. 수많은 더하기와 빼기, 짝대기를 달은 내 기분 누군가에겐 시시콜콜한 얘기뿐일수도 있어. 그래 난 개들이 부러워 오늘 내 노트는 드러워져. (2절 생략)

- 재지팩트 'Smoking Dreams'



TCE 공장



베트남 역사 박물관



육교

4일차: 쩐꾸옥 사원 --> 호찌민 묘소 --> 공항

마지막 날, 가장 베트남다운 곳을 방문하였다. 쩐꾸옥 사원의 쩐꾸옥 탑은 하노이에서 가장 오래된 탑으로 1,450년이 넘는다고 한다. 야자수가 즐비하고 호반에 세워진 절은 한국에서 볼 수 없기에 더욱 신기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일반적인 사찰의 풍경이 펼쳐졌고, 반대편에는 이례적으로 산이 아닌 호수가 보였다. 사람들이 베트남어로 기도를 했고, 종교에 의지하는 인간의 모습은 국적과 상관없이 똑같았다.

쩐꾸옥 사원에서 15분~20분쯤 걸으면 호찌민 묘소를 갈 수 있다. 국부(國父)의 묘소인 만큼, 입장부터 보안검문이 철저했다. 눈앞에서 본 호찌민 묘소의 모습은 경이로웠다. 한 인간의 묘가 저렇게 클 수가 있나 생각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찌민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호찌민이 본인의 시신을 화장해 베트남 각지에 묻어 달라한 유언한 사실을, 나는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덕에 최대한의 예의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근처 식당에서 식사한 뒤, 기숙사로 돌아갔다. 도로 위는 여전히 무법천지였고, 막혔지만 이 교통정체마저 그리울 것 같은 하노이의 마지막 밤이었다. 하노이에 다시 온다면 그때는 더욱 애정을 갖고 도시를 다니겠노라 다짐했다.



쩐꾸옥 사원 전경



쩐꾸옥 사원 내부

호찌민 묘소

2. 참여 소감 및 향후 계획

“다름으로 얻은 깨달음”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여행은 의미를 품었다. 즉 ‘이번 여행 공짜네 좋다.’라는 1차원적 생각이 아니라, ‘이번 여행은 나에게 어떤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가?’를 생각하였다. 이기적이었던 나는 사유, 이 기적을 통해 여행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다.

#언어

창세기 11장에 의하면 인류는 원래 공통의 언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바벨탑 건설로 인해 주님이 노하셔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다 한다. 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인류는 실제로 긴 시간을 각자의 지역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지내왔다. 한국과 베트남도 마찬가지이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깊이 있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힘들었고, 베트남어에 까막눈인 나는 답답했다. 또한 ‘영어를 안 쓰는 국가도 있네’라며 구시렁댔다.

그러나 문화교류 시간에 베트남 학생들을 만난 이후,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두 여학생이 우리 조에 배정되었고 얘기를 나눴다. 생각보다 한국어를 잘해서 놀랐고, 무엇보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목적(취업)이 새삼 비슷하다는 것도 흥미로웠다. 이후 짬짬이 베트남어를 공부하였지만 성조 때문에 쉽지 않았다.

마지막 날 아침, 용기를 내어 혼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한식당에 들어갔는데 “혹시 한국 사람이예요?”라고 주인이 물어봤다. 억양·발음 모두 서툴렀지만 너무 반가웠다. 구글 번역기를 켜서 베트남어로 답변을 하고자 노력했고, 한국음식에 관한 짧은 대화를 이어나갔다. 한국인은 베트남어로, 베트남인은 한국어로 발화하는 다소 이상하고 진기한 풍경 속에서 느낀 점이 있었다. 원활한 교류를 위해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고, 이해의 중심은 다름 아닌 ‘언어’라는 것이다. 즉, 베트남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베트남어를 해야, 아니 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다. 탐방 전, 베트남어를 조금이라도 숙지하지 않았던 점이 후회되었다. 또한, 영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한국어를 자랑스럽게 여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식민지배와 분단

친일파들이 모든 분야를 장악한 새 나라에서 독립운동가라서 취직이 안 되고, 일제의 고등계 형사질을 하며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던 자들이 새 나라의 경찰로 둔갑해서 똑같은 지하실에서 다시 독립운동가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고문하고, 친일파들에 대한 연구를 하던 젊은 학자가 사회진출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사실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나는 끝없이 괴로워했고 아픔을 겪었고 밤잠을 설쳤다. 그러면서 반역의 역사에 대한 나의 분노는 이성화되었고, 증오는 논리화되어 갔다. 그 이성적 분노와 논리적 증오는 소설을 써야 한다는 욕구와 열정으로 변모했다.

- 조정래, <아리랑>의 밑뿌리 中

‘불의(不義)’의 역사는 끊임없는 모순을 낳았다. 우리에게도 아직도 미해결된 문제, 분단이 남아 있다. 그 이전에 식민지의 역사가 있었다. 식민지가 분단을 낳고, 분단은 또 다른 분단을 낳고, 왜곡된 삶을 낳은 것이다. 역사에 책임을 다한 사람들은 폄박받고, 그 책임을 회피한 사람들이 전자의 희생을 앗아서 육신의 안일함을 보장받은 것이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아직도 해방 75주년을 맞는 한국사회의 자화상이다. 식민지와 분단의 멍에를 한 몸에 안고 뒤뚱대는 우리의 삶과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할지 늘 고민했다.

이에 대한 답을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경험한 베트남에서 찾고자 하였다. 베트남인들은 항불/항일 투쟁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공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김원봉과 같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가 인정받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다만, 이념에 빠져 사실을 제대로 보지 않으려는 한국 사회의 경향성은 타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베트남의 역사는 좋은 참고

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베트남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알아보았다. 답은 공감이었다. 모든 것이 상이했던 북·남베트남인들은 통일 초기만 하더라도 애를 먹었다고 한다.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에 비해 훨씬 부유했고, 그들의 지리적·문화적 차이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민족이라는 동질성 하에서, 그들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며, 한국 사회에서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생각했다.

신(信)은 죽었다. 대한민국에서. 괴물집단·꼰대·여혐 등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냉소주의가 만연하다. ‘갈등’은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 내에서의 갈등도 봉합되지 않았는데,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동일할리 만무하다. 다시금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적대국가, 경쟁상대 혹은 협력상대 등 하나의 측면으로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모습이 공존하는 입체적 존재로서 북한을 이해하고자 결심하였다. 즉, 북한은 주사위와 같다. 굴릴 때마다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하루하루 급변하는 한반도의 모습과 유사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모습이 아니라 관심이다. ‘이번에 던지면 뭐가 나올까?’하는 관심이 북한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관심은 밀레니얼 세대에게 더욱 필요하다. 우리는 통일한국을 만들고 이끌어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채워진 3박 5일의 여정은 내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시간이 지나, 추억이 희미해져도 괜찮다.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다. 기억은 이미 걸어온 길을 되돌아 가보는 것이지만, 상상은 아직 안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원 모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무대의 주역이 되는 즐거운 상상으로, 2019 해외현장조사 추억의 빈자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 또한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3. 프로그램 주관 기관 및 대학에 바라는 점

나의 대학상(像)에 감명을 준 ‘드류 길핀 파우스트’ 하버드대학 총장은 취임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The essence of a university is that it is uniquely accountable to the past and to the future - not simply or even primarily to the present. A university is not about results in the next quarter; it is not even about who a student has become by graduation. It is about learning that molds a lifetime, learning that transmits the heritage of millennia; learning that shapes the future.”

- Drew Gilpin Faust , An inaugural address in Harvard

즉, 대학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2019 동계 베트남 해외현장조사는 대학의 존재이유에 부합하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처럼, 직접 보고 느꼈던 베트남은 사유의 지평을 확장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졸업을 앞둔 고학번이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학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왜 진작 참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과 ‘마지막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탐방 내내 교차하였다. 이처럼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 많은 학생들이 일찍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대학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더욱 알차고 풍요로운 프로그램을 후배들이 누리길 기원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이상신 교수님, 홍현진 조교님, 현지 가이드님과 버스 기사님께도 못다 한 감사를 전한다.

4. 다른 학우 및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았던, 3박 5일의 여정이 마무리 됐다. 5일간 한국과 다른 문화와 환경, 사람들을 관찰하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많은 곳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한 곳을 가더라도 많은 생각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즉, 다다익선(多多益善)이 아니라 사사익선(思思益善)임을 알게 된 탐방이었다. 아무리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경험하여

도, 사유가 없다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이번 탐방은 나에게 '세계를 무대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 참가하지 않은 많은 학우들에게 이러한 계기를 몸소 체험해볼 것을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성공이 아닌 성장의 가치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장으로서 6조 조원들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한다. 탐방 중 즐거웠던 분위기와 성과는 조원들의 몫이고, 탐방 중 생겼던 과오와 불찰은 온전히 내 탓이다. 이 자리를 빌려, 동고동락한 조원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End가 아닌 And임을 알기에, 아쉬움은 이 글에 잠시 묻어두고 설렘으로 가득한 다음 만남을 고대한다.